

농어촌공 원주, 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응' 훈련 실시

김형석 기자 | 승인 2026.05.12 15:46

원주 공촌저수지서 민·관 합동 점검… 단계별 주민 대피 및 응급 복구 체계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12일 원주시 귀래면 공촌저수지에서 열린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진행했다. [제공=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녹색경제신문 = 김형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가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등 복합 재난에 대비해 저수지 붕괴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했다.

원주지사는 12일 원주시 귀래면 공촌저수지에서 공사 직원과 원주시청, 원주소방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해대비 저수지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저수지 파손 시 하류 지역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키고, 파손된 시설물을 긴급 복구하는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재난 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해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단계별로 위험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교통 통제, 응급 복구, 부상자 이송, 사후 점검 등이다. 특히 관계 기관과의 실시간 협조 체계를 가동해 현장 대응 능력을 동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는 지역 사회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원주시는 저수지 붕괴가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재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남기두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시사장은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재난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형석 기자